

# 성 태도 · 성 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김주희

강사 송은일·강성희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Kim, Joo Hee

Lecturer : Song, Eun Il · Kang, Sung Hee

##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on the one hand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the other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1,237 students from different areas were surveyed. Sexual attitudes are subdivided into four aspects, namely, permissiveness, instrumentality, emotional exchange, and responsibility, and sexual behaviors into indirect and direct ones.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the subjects are found being different, depending on such variables as sex, religion and dating experiences. Secondly, while being related with both indirect and direct sexual behaviors, the variable of co-residence with parents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Corresponding Author: Kim Joo H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3ka, dongsun-dong, sungbuk-ku. seoul, 136-742, Korea

Tel: 82-2-920-7208 Fax : 82-2-921-6804 E-mail: jhk906@hotmail.com

\* 본 논문은 200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spect of permissiveness, but not with the other three aspects. Thirdly,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sexual attitudes. One who has an open pattern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tends to have more desirable sexual attitudes and is better able to control sexual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성 태도(sexual attitudes), 성 행동(sexual behavior), 부모자녀관계(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의사소통(communications)

##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한국사회에 있어 성 담론은 거의 일상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성과 관련된 개인적 및 사회적 이슈들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성의 상품화, 청소년 성 매매, 혼외 정사 및 이로 인한 가족 해체, 미혼모 문제, 동거커플의 증가 등은 그 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에 있어 특히 보다 일찍이 성 개방이 이루어진 서구 및 일본 등의 사회들과 비교해 볼 때 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개방적으로 담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성 문제의 실제적 모습은 상당 부분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층의 성 문화에 있어 특히 두드러져 그들의 성 태도 및 성 행동의 실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오늘날 바람직하고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합의가 실증된 상태에 놓여 있고 성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의 성 태도와 성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아직 부족한 데 그 주요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 있어 청년층이 각종 성 관련 정보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중매체, 인터넷사이트, 성 관련 산업의 번창 등이 그들의 성 태도 및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체로 지목되어 왔다. 젊은 층의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함에 있어 그러한 외부적인 사회환경적 조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일한 사회환경적 조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성 태도와 성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가치관의 형성이 마무리되어 가는 청년기의 성 태도 형성과 성 행동에 있어 유의하게 작용하는 관련 변인들을 밝혀내는 일은 건전한 성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할 연구 과제이다.

개인의 성장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이며 가족환경이 청년기의 일탈적 성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sup>1)</sup>(강현미, 1999; 김진희, 1989; 장미숙, 2000). 그러나 성 태도 형성에 있어 가족관계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특히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이외 부모-자녀관계의 내용은 다른 가치관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 태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행해진 바 없다. 부모자녀관계와 성 태도, 성 행동간의 관계를 밝히려 하는 것은 비단 부모의 성교육 혹은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라는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다. 부모의 성교육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들은 아직까지 자녀에 대한 성교육에 있어 개방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녀들은 일상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다른 영역(예를 들면 자아존중감 등)(김남희, 2000; 김옥숙, 2001; 남정홍, 2001; 박은민, 2000; 이달석, 김재현, 1999; 최인경, 2001)에서와 마찬가지로 성 문제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그러한 관점

1) 예를 들어 부모의 성격 특성, 가족구조, 가족결속도, 가족성원의 가치와 태도, 가족간의 상호작용 등이 성 행동과 관련이 있다.

에서 행해진 것이다.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성 의식 및 성 태도가 완성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상태, 1995). 이 때의 성 태도는 청년기의 인격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간의 성적 적응 및 기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며, 결혼 전의 이성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인간관계의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James, 1979). 또한 부부간 성적 갈등의 잠재성에 대한 예측은 청년기까지 형성된 성 태도 및 성 행동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연구원, 이근후, 1985). 따라서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에 비해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학생에 대한 성 관련 연구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외 부모와의 관계변인을 사용하여 성 태도·성 행동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추려 내고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한국 청년기의 성 관련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비행 청소년의 성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알아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외 자존감 등 개인심리적 변인들을 사용한 연구 모형을 채택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성 관련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본 성 태도 및 성 행동에 관한 실태 보고서 성격이 대부분이다(강병우, 1994; 강영신, 손영숙, 1998; 강현숙, 1989; 김기범, 1998; 김현숙, 1999; 맹관호, 1986; 박희두, 1997;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성한기, 1996; 장순복, 1997; 전은경, 2000; 한국성문화 연구소, 1998; 한성수, 2000). 그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학생의 성 태도 혹은 성 행동이 성별, 종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성과의 교제 경험 유무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예를 들면 여자보다 남자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이며, 성 태도 면에서도 좀 더 개방적이고 성 행동 관련 경험도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또한 남성은 성을 육체적 행위로 보고 여성은 감정적인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적 사실을 밝히고 있다. 종교 변인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신념이 성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종교를 가진 학생이 무교인 학생보다 좀 더 보수적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문인옥, 1997; 이현규, 1996)에서는 가족관련 변인 또한 성 태도 및 성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김현숙, 1999;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이상문, 1995)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만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예를 들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성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족관련 변인, 예를 들면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

성적 발달이 왕성해지고 성적 충동의 조절을 학습하는 청년기에는 가족보다는 가족 외의 사람들, 즉 또래친구, 선배, 혹은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인이 그러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내면화시키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가는 그의 성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때 개인의 성 가치관은 다른 종류의 가치관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크게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성 태도에 대한 자녀의 인지는 자녀의 성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적응,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등 인식 및 가치관 형성에 크게 관련되어 있음이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또한 성 가치관에도 주요하게 작용하리라 상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주로 아동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주로 문제행동, 비행 정도,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사회성 등이 관련 변인으로 다루어졌다(권보연, 2000; 김재현, 2000; 김희영, 1999; 박은민, 2001; 유희정, 1999).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변인을 성과 관련시켜 행해진 연구들(이현규, 1996; 장미숙, 2000; 허재경, 2001)이 있으나 대부분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른 성 경험 혹은 성 관련 일탈적 행동이 부모와의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내는데 그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성향 등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되어 연구된 바 있다(고효정, 1996; 권보연, 2000; 박은민, 2001). 그러나 국내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되어 연구된 적은 거의 없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모의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자녀의 성 관련 가치형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행 청소년의 성 관념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민하영, 1991). 국외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에게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될 때 자녀의 성 태도의 허용성 수준이 낮아지고, 혼전 성관계 시기가 늦추어지며, 의사소통 유형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일 때 자녀의 성 태도 허용 수준이 높아지며, 혼전 성관계 빈도가 증가된다(White & DeBlasie, 1992; 허재경, 2001에서 재인용)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 태도를 성적 허용성, 도구성, 교류성,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성 행동으로는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촉이라는 간접적인 것과 성교 경험이라는 직접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외 부모와의 관계 변인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가족관계가 자녀의 성 태도 및 성 행동에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내어 보다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I.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개인적 변인(성별, 종교, 이성교제 경험 유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대학생의 성 태도 및 성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와의 관계(부모와의 동거 여부,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대학생의 성 태도 및 성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차 예비조사는 2001년 10월 18일 4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차 예비조사는 2001년 11월 5일 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11월 9일 최종 수정된 설문지를 2001년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배부 및 회수하였다. 본조사에는 모두 1,461부의 설문지를, 전라도 지역 340부, 경상도 지역 100부, 충청도 지역 483부, 경기도 지역 120부, 서울 지역 418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것과 부실 기재된 224부를 제외하고 모두 1,237부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것들을 지역별로 보면, 전라도 지역에서 215부, 경상도 지역에서 70부, 충청도 지역에서 483부, 경기도 지역에서 104부, 서울 지역에서 365부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개인적 변인

대학생의 성 태도·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 성별, 종교, 이성교제 경험 유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변인이 사용되었다.

<표 1>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N=1237

특 성	범 주	빈도(%)
성별	남 성	490(39.6)
	여 성	747(60.4)
연령	19세 이하	372(30.1)
	20-22세	618(50.0)
	23세 이상	247(20.0)
종교	기독교	404(32.7)
	천주교	156(12.6)
	불교	146(11.8)
	기타	9(0.7)
	무교	522(42.2)
대학전공	인문사회계열	504(40.8)
	자연이공계열	450(36.4)
	의약학계열	64(5.2)
	예술체능계열	196(15.8)
	신학계열	23(1.9)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	592(47.9)
	부모의 가족과 동거	88(7.1)
	친척집 거주	22(1.8)
	학교 기숙사	207(16.7)
	동성 친구와 동거	110(8.9)
	이성 친구와 동거	14(1.1)
	단독 가구	200(16.2)
	기타	4(0.3)
부모의 교육 수준	초졸 이하	부 57 (4.6) 모101 (8.2)
	중졸	부127(10.3) 모233(18.8)
	고졸	부548(44.3) 모632(51.1)
	대졸 이상	부505(40.8) 모271(21.9)
부모의 직업	무직, 주부, 은퇴	부 67 (5.4) 모751(60.7)
	단순노무직	부 26 (2.1) 모 46 (3.7)
	기술직	부133(10.8) 모 25 (2.0)
	자영업	부352(28.5) 모207(16.7)
	농축어업	부100 (8.1) 모 61 (4.9)
	사무직	부236(19.1) 모 42 (3.4)
	경영관리직	부125(10.1) 모 27 (2.2)
	전문직	부151(12.2) 모 67 (5.4)
기타	부 47 (3.8) 모 11 (0.9)	

2)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변인으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묻는 변인은 조사대상자

의 거주형태를 '부모와 동거한다'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의 두 범주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묻는 변인은 '결혼 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사랑한다면 괜찮다', '얼마든지 가능하다'의 4개 범주로 질문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의 개방성 정도를 묻기 위해 Bams와 Olson(장미숙, 2000에서 재인용)이 제작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하위 척도인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편하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지를 묻는다. 두 번째 하위 척도인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말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무시하는지와 같은 의사소통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개방적 의사소통 문항은 1, 2, 3, 4, 5 순으로 점수화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항은 5, 4, 3, 2, 1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하였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이 척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따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성 태도와 성 행동

대학생의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和田實·西田智男(1991)이 개발한 성 태도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46문항으로, '어느 정도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가'를 질문하는 허용성 20 문항, '성을 단지 도구로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는 도구성 9문항, '성을 남녀간의 가장 친밀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는 교류성 8문항, '성에 따른 책임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책임성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 중 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응답률이 낮은<sup>2)</sup> 문항들을 빼고 하위 영역별로 5문항씩 모두 20문항이 사용되었다.

선택된 문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허용성 5개 문항은 '매춘', '혼전 성관계', '혼외정사',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 '일회적인 성관계로 끝나는 만남'에 대하여 얼마나 허용적인가를 질문하는 것으로, 혼인관계 이외에서 발생하는 성관계를 허용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도구성 5개 문항은 성을 '즐기기 위한 것',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남녀간의 게임', '정복감을 느끼기 위한 것',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 성적 매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가를 질문하는 것으로, 성을 남녀간의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 아닌 도구적 행위로 보는가를 말한다. 허용성과 도구성 이 두가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성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교류성 5개 문항은 성 행위를 남녀간의 '친밀한 의사소통', '애정적 교류', '정신적 결합'으로 보는가 그리고 성 행위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질문하는 것으로, 성 행위를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닌 정서적 결합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책임성 5개 문항은 성 행위시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가 그리고 '임신 가능성', '임신을 원치 않을 때 반드시 피임', '성병 감염 가능성', '낙태'에 대하여 진지한 고려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성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말한다. 교류성과 책임성은 바람직한 성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항들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되었다.

대학생의 성 행동은 간접적 성 행동과 직접적 성 행동으로 나누어 보았다. 간접적 성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하였다. 또한 직접적 성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교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하였다.

### 3. 분석방법

통계패키지인 SPSS WIN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chi^2$  검정, t검정, F검정이 사용되었다. 한편 척도 구성의 내적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 측정을 하였으며, 각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9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91, 성 태도 척도들 중 허용성 척도가 .75, 도구성 척도가 .68, 교류성 척도가 .73, 책임성 척도가 .58이었다.

## V. 연구결과

### 1. 개인적 변인(성별, 종교, 이성교제 경험 유무)과 대학생의 성 태도·성 행동

개인적 변인 중 부모의 학력과 직업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나머지 변인들만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선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성 태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허용성과 도구성이 각각 2.3과 2.4, 교류성과 책임성은 각각 4.1과 4.4로, 즉, 바람직한 성 태도 측면에 높은 점수가, 그렇지 않은 측면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건전한 성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 행동에 있어서는 간접적 경험은 35.5%, 직접적 경험은 34.2%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들 중 성교 경험을 한 대학생은 대략 1/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2) 예를 들어 "오르가즘은 성적 교감의 극치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율은 매우 낮았는데,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 중 몇몇은 "잘 모르겠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성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참고로 조사 대상자들의 첫 성교 시기는 고등학교 이전이 전체의 9.8%이고 대학교 이후가 24%내외, 아직 경험하지 못한 비율은 65.8%로 19세 미만의 성인기 이전 시기에 성교 경험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와 성 행동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성별은 허용성, 도구성, 책임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즉 허용성과 도구성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고, 책임성은 여자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았다. 남자대학생은 성을 보다 허용적이고, 도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여자대학생은 성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행동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성별은 간접적 및 직접적 성 행동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간접적 성 행동을 보면,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본 경험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다음으로 직접적 성 행동을 보면, 남자 대학생은 '성교 경험이 없다'

<표 2>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

성 의식	성별	M	SD	t값
허용성	남성	2.78	.78	18.17***
	여성	2.03	.65	
도구성	남성	2.60	.76	8.10***
	여성	2.26	.67	
교류성	남성	4.19	.55	1.66 n.s.
	여성	4.13	.59	
책임성	남성	4.29	.50	-7.63***
	여성	4.50	.45	

\*\*\*p<.001

<표 3>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간접적 · 직접적 성 행동

성 별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전 체
	본 적 없다	본 적 있다	
남성	31(6.3)	459(93.7)	490(39.6)
여성	408(54.6)	339(45.4)	747(60.4)
$\chi^2=301.42^{***}$ df=1			
성 별	성교경험 유무		전 체
	경험 없다	경험 있다	
남성	232(47.3)	258(52.7)	490(39.6)
여성	582(77.9)	165(22.1)	747(60.4)
$\chi^2=122.85^{***}$ df=1			

\*\*\*p<.001

가 232명(47.3%)이고 '성교 경험이 있다'가 258명(52.7%)인 반면, 여자 대학생은 각각 582명(77.9%), 165명(22.1%)으로,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2.5배 정도 더 많았다.

2) 종교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 · 성 행동

종교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종교는 허용성, 도구성, 책임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개신교 · 천주교인 경우가 다른 종교

<표 4> 종교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

성 의식	종 교	M	SD	F값	Scheffe
허용성	개신교 · 천주교	2.18	.76	20.43***	a
	불 교	2.37	.78		b
	기타 · 무교	2.48	.79		b
도구성	개신교 · 천주교	2.31	.69	7.81***	a
	불 교	2.38	.67		ab
	기타 · 무교	2.48	.76		b
교류성	개신교 · 천주교	4.15	.55	.06 n.s.	
	불 교	4.17	.58		
	기타 · 무교	4.15	.61		
책임성	개신교 · 천주교	4.48	.44	10.11***	b
	불교	4.41	.50		ab
	기타 · 무교	4.35	.51		a

\*\*\*p<.001

<표 5> 종교에 따른 대학생의 간접적 · 직접적 성 행동

종 교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전 체
	본 적 없다	본 적 있다	
개신교 · 천주교	220(39.3)	340(60.7)	560(45.3)
불 교	52(35.6)	94(64.4)	146(11.8)
기타 · 무교	167(31.5)	364(68.5)	531(42.9)
$\chi^2=7.31^*$ df=2			
종 교	성교경험 유무		전 체
	경험 없다	경험 있다	
개신교 · 천주교	376(67.1)	184(32.9)	560(45.3)
불 교	100(68.5)	46(31.5)	146(11.8)
기타 · 무교	338(63.7)	193(36.3)	531(42.9)
$\chi^2=2.00$ n.s. df=2			

\*p<.05

인 경우보다 허용성이 낮았다. 도구성은 개신교·천주교인 경우 가장 낮고, 기타·무교인 경우 가장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책임성은 개신교·천주교가 가장 높고, 기타 종교와 무교가 가장 낮았다. 한편 교류성은 종교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교에 따른 대학생의 성 행동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간접적 성 행동은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 성 행동은 종교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본 경험은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지만 성교 경험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개신교·천주교를 믿는 대학생이 성에 대한 허용성 및 도구성이 낮고 책임성이 높아 보수적인 성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간접적인 성 행동의 경험 정도도 낮게 나타났으나, 성교의 경험 유무는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성 태도 및 간접적 성 행동을 통제하는 변인이었을 뿐, 직접적인 성 행동 즉 성교 경험을 통제하는 변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성 행동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이성교제의 경험 유무는 허용성과 교류성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허용성은 과거이건 현재이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고, 교류성은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거나 사귀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반면에 책임성과 도구성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성 행동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이성교제의 경험유무는 간접적 및 직접적 성 행동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간접적 성 행동을 보면, 이성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과거에 사귀었지만 지금은 없다, 현재 사귀고 있다는 순으로 음란사이트를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성 행동을 보면, 이성친구를 사귀지 않은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94.7%)이 성교 경험이 없었다. 반면에 현재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 대학생들은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과 과거에 사귀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성교 경험이 훨씬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 태도에 있어 허용성과 교류성이 높으며, 간접적 및 직접적 성 경험의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

성 의식	종교	M	SD	F값	Scheffe
허용성	사귀지 않았다	2.18	.75	6.49**	a
	과거에 있었다	2.36	.79		b
	현재 사귀고 있다	2.38	.80		b
도구성	사귀지 않았다	2.40	.73	.517 n.s.	
	과거에 있었다	2.42	.68		
	현재 사귀고 있다	2.37	.75		
교류성	사귀지 않았다	4.05	.59	16.90***	a
	과거에 있었다	4.07	.56		a
	현재 사귀고 있다	4.25	.56		b
책임성	사귀지 않았다	4.44	.47	.627 n.s.	
	과거에 있었다	4.40	.48		
	현재 사귀고 있다	4.42	.48		

\*\*p<.01, \*\*\*p<.001

<표 7>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간접적·직접적 성 행동

이성친구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전 체
	본 적 없다	본 적 있다	
사귀지 않았다	117(44.0)	149(56.0)	266(21.5)
과거에 있었다	138(35.8)	247(64.2)	385(31.1)
현재 사귀고 있다	184(31.4)	402(68.6)	586(47.4)
$\chi^2=12.68^{**}$ df=2			
이성친구	성교경험 유무		전 체
	경험 없다	경험 있다	
사귀지 않았다	252(94.7)	14(5.3)	266(21.5)
과거에 있었다	265(68.8)	120(31.2)	385(31.1)
현재 사귀고 있다	297(50.7)	289(49.3)	586(47.4)
$\chi^2=160.07^{***}$ df=2			

\*\*p<.01, \*\*\*p<.001



2. 부모와의 관계와 대학생의 성 태도와 성 행동

1)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와 성 행동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허용성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와 동거할 때가 동거하지 않을 때보다 허용성이 낮았다. 그러나 도구성, 교류성, 책임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성 태도 중 허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성 행동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간접

적 및 직접적 성 행동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간접적 성 행동을 보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가 동거할 때보다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직접적 성 행동 즉 성교 경험 정도도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가 동거할 때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부모와 같이 사는 대학생은 성에 대한 허용성이 낮으며, 간접적, 직접적 성 경험도 낮았다. 부모와의 동거는 대학생의 성에 대한 허용성 태도와 성 경험을 통제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2)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 · 성 행동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있어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부모의 경우 전체의 59.5%가 '결혼 전에는 절대 안된다'로 나타나 상당히 보수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허용성, 도구성, 교류성, 책임성 모두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허용성과 도구성은 부모가 자녀의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장 높고, '결혼 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장 낮았다. 반면에 교류성은 '사랑한다면 괜찮다', 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높았다. 책임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경우가 다른 응답의 경우보다 낮았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행동의 차이는 <표 11>과 같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간접적 및 직접적 성 행동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본 경험은 부모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랑한다면 괜찮다', '결혼을 약속한 경우라면 괜찮다', '결혼 전에는 절대 안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 성 행동의 경우에도 같은 순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성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대학생의 성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표 8>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

성 의식	동거 여부	M	SD	t값
허용성	동 거	2.28	.78	-2.216*
	비동거	2.38	.80	
도구성	동 거	2.39	.68	-.343 ns.
	비동거	2.40	.76	
교류성	동 거	4.17	.58	1.163 ns.
	비동거	4.13	.58	
책임성	동 거	4.43	.48	.919 ns.
	비동거	4.41	.48	

\*p<.05

<표 9>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간접적 · 직접적 성 행동

동거여부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전 체
	본 적 없다	본 적 있다	
동거	231(39.0)	361(61.0)	592(47.9)
비동거	208(32.2)	437(67.8)	645(52.1)
$\chi^2=6.18^{**}$ df=1			
동거여부	성교경험 유무		전 체
	경험 없다	경험 있다	
동거	422(71.3)	170(28.7)	592(47.9)
비동거	392(60.8)	253(39.2)	645(52.1)
$\chi^2=15.14^{***}$ df=1			

\*\*p<.01, \*\*\*p<.001

〈표 10〉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

성 의식	부모의 태도	M	SD	F값	Scheffe
허용성	결혼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	2.12	.73	39.22***	a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2.56	.64		ab
	사랑한다면 괜찮다	2.90	.82		bc
	얼마든지 가능하다	3.32	.78		c
도구성	결혼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	2.28	.67	14.17***	a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2.36	.71		ab
	사랑한다면 괜찮다	2.79	.88		ab
	얼마든지 가능하다	2.86	.81		c
교류성	결혼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	4.12	.60	3.44**	a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4.28	.49		a
	사랑한다면 괜찮다	4.36	.54		b
	얼마든지 가능하다	4.34	.60		b
책임성	결혼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	4.48	.47	9.35***	b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4.43	.46		b
	사랑한다면 괜찮다	4.37	.53		b
	얼마든지 가능하다	3.96	.49		a

\*\*p&lt;.01, \*\*\*p&lt;.001

〈표 11〉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간접적·직접적 성 행동

혼전 성 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인터넷음란사이트		전 체
	본적없다	본적있다	
결혼전에는 절대 안된다	316(42.9)	420( 57.1)	736(83.0)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22(23.7)	71( 76.3)	93(10.5)
사랑한다면 괜찮다	8(16.7)	40( 83.3)	48( 5.4)
얼마든지 가능하다	0( 0.0)	10(100.0)	10( 1.1)
$\chi^2 = 48.59^{***}$ df=3			
혼전 성 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성고 경험 유무		전 체
	경험없다	경험있다	
결혼전에는 절대 안된다	536(72.8)	200(27.2)	736(83.0)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47(50.5)	46(49.5)	93(10.5)
사랑한다면 괜찮다	22(45.8)	26(54.2)	48( 5.4)
얼마든지 가능하다	4(40.0)	6(60.0)	10( 1.1)
$\chi^2 = 45.36^{***}$ df=3			

\*\*\*p&lt;.001

치고 있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허용적일 때 대학생도 성 태도 뿐 아니라 성 행동에 있어서 허용적이고 도구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3)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성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이란 자녀가 부모와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억압받지 않고, 자유

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전체적인 의사소통 양상을 보면, 아버지와 의사소통 평균은 3.4, 어머니와는 3.7로서 평균치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부모와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성행동의 차이는 <표 12>와 같다. 의사소통의 개방

성 점수를 3.5점 이상일 때는 '높다' 그리고 3.5점 미만일 때는 '낮다'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점수로 볼 때 대략적인 빈도의 반분위로 나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있어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허용성, 도구성, 교류성, 책임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대학생의 성 태도에 있어서 허용성, 도구성이 낮고, 책임성, 교류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녀는 성에 대하여 좀더 허용적이고, 성을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을 갖게 됨을 말해 준다.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자녀가 성에 대하여 좀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성을 남녀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12>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

성의식	의사소통 수준	M	SD	t값
허용성	낮다	2.37	.80	3.64***
	높다	2.17	.72	
도구성	낮다	2.43	.72	3.89***
	높다	2.23	.71	
교류성	낮다	4.12	.58	-2.89**
	높다	4.25	.57	
책임성	낮다	4.40	.49	-3.47***
	높다	4.51	.42	
허용성	낮다	2.42	.82	5.01***
	높다	2.18	.72	
도구성	낮다	2.47	.73	5.15***
	높다	2.24	.71	
교류성	낮다	4.11	.58	-3.76***
	높다	4.24	.55	
책임성	낮다	4.37	.50	-5.27***
	높다	4.52	.41	

\*\*\*p<.001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행동의 차이는 <표 13>과 같다. 간접적 및 직접적 성 경험 유무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점수를 살펴 본 결과, 대학생의 성 태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모두가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성 행동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의사소통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더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는 간접적 성 경험 즉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본 경험의 유무에만 영향을 미쳐, 아버지와 대화의 질이 잘 될 때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본 경험이 더 적었다. 그러나 직접적 성 행동의 경험 유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3>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와 대학생의 간접적 · 직접적 성 행동

성행동	경험 유무	의사소통수준	M	SD	t값
인터넷 음란사이트	본 적 없다	아버지	3.51	.66	3.06**
	본 적 있다		3.38	.64	
성교경험유무	경험 없다	아버지	3.45	.64	1.80 n.s.
	경험 있다		3.37	.67	
인터넷 음란사이트	본 적 없다	어머니	3.81	.62	4.58***
	본 적 있다		3.64	.58	
성교경험유무	경험 없다	어머니	3.74	.60	3.03**
	경험 있다		3.62	.61	

\*\*p<.01, \*\*\*p<.001

반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높을 때 간접적 및 직접적 성 행동 경험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의 성 태도와 성 행동의 실태가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에 초점을 맞춰 행해졌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성 태도와 성 행동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종교별, 이성교제 경험 유무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이 간접적·직접적 성 경험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성 태도에 있어서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은 허용성만 높을 뿐이며, 도구성, 교류성, 책임성에 있어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들과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감시 역할(즉 부모자녀 동거 여부) 유무가 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자녀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있어 나타난 것과 같은 평소 부모의 성 가치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은 성 책임성과 교류성 등 바람직한 성 태도와 긍정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성 행동에 있어서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은 간접적 성 행동, 어머니와는 간접적, 직접적 성 행동 둘 다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집단이 아닌 일반 청년 집단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그들의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남성은 성에 대하여 허용적이고 성을 도구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여성은 성

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 개방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성을 감정적 행위로 보는 여성과 도구적 행위로 보는 남성간의 시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여성들은 성 개방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Kishwar(1997)의 지적과 연관되어 주목할 만하다.

둘째, 부모들은 흔히 자녀와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성 지식을 전달해 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재경, 2001). 특히 한국의 부모자녀간에는 아직까지 성에 관한 대화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성교육은 가정에서보다는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 교육은 기본적인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상적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대학생의 바람직한 성 태도인 책임성, 교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 경험의 가능성도 낮추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성 관련 가치관과 행동이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넘쳐나는 성 관련 정보와 유희 속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개방적 성 태도와 행동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평생 시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유형은 다른 인성 영역에서 뿐 아니라 성 영역에서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 성에 관한 사회적 허용성과 성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인기를 준비하는 발달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건전한 성 의식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제시가 시급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성적 접촉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위험하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성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프로그램 및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 관련 의식 및 규범들이 우리 사회의 성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건전한 성 의식을 형성하는데 교육적 대안으로서 가족 변인 중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중요한 변인으로서 제시해준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간접적 성 경험의 척도로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본 적이 있는가를 질문 하였으나, 사실상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자주 들어가 보는가?' 라는 질문이 더 타당하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그 빈도를 질문하였으나, 지면 부족 상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본 조사에서 배분된 설문지 1,461부 중 224부, 15.3%가 회수되지 않았다. 전국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경상도 지역에 배부된 설문지의 회수율이 낮아 조사대상자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 ■ 참고문헌

- 강병우(1994). 대학생의 성 및 AIDS에 관한 의식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1(1), 43-55.
- 강영신, 손영숙(1998). 전남대학생의 성의식, 성지식, 이성경험, 성고민 문제 및 성 교육에 대한 실태 및 변화 연구. 학생생활연구, 30, 71-93. 전남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 강현미(1999).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대구효성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숙(1989).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경험의 관계연구. 최신의학, 32(2), 120-125.
- 김남희(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 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199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1996). 부모와 청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관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보연(2000).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범(1998). 카톨릭 성직자 지망 신학대학생들의 성의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태(1995). 청소년·대학생의 성,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대학생의 성 문제, 제 8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재현(200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9). 대학생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2), 339-356.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인옥(1997). 일부 대학생의 성 의식 및 성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95-112.
- 맹관호(1986). 대학생의 성의식·성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 공업개방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산업대 학생생활연구, 2, 67-99.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민(2001). 대학생의 적응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두(1997). 대학생의 성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1), 95-125.
-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1995). 미혼남녀의

- 성행동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성한기(1996).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1), 207-229.
- 연규원, 이근후(1985). 부부간 성적갈등의 잠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희정(1999). 비행청소년 및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동 특성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달석, 김재현(1999).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생활지도연구*, 93-114.
- 이상문(1995). 청소년의 성적허용성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규(1996). 영상매체가 청소년 성행동에 미치는 실태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은경(2000). 한국 수도권 대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구조 및 행동양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숙(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순복(1997). 대학생 성병 예방의 심리적 단계. *대한간호학회지*, 27(2), 423-432.
-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성문화연구소(1998). 대학생의 성행태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 조사연구*, 98(3), 14-85.
- 한성수(2000). 성관련 태도와 정보 출처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대학생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재경(2001).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和田實, 西田智男(1991). 性に對する態度および性行動の規定因(1): 性態度尺度の作成. *東京學藝大學期要 1部門*, 42, 197-211.
- James, M (1979). *Marriage is for loving*. Addison Wesley pub. Co, pp 134-155.
- Kishwar, Madhu (1997). Women, sex and marriage: Restraint as a feminine strategy. *Manushi*, 99, 23-36.

(2002년 8월 14일 접수, 2003년 1월 3일 채택)